

혁신조달에 거는 기대

✎ 김세종 | ⓒ 승인 2022.11.10 14:23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조달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공공 조달 규모는 184.2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057.4조원)의 9.0%, 정부예산(604.9조원)의 30.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 별 공공 조달 규모는 중소기업 118.9조원(64.6%), 중견기업 26.3조원(14.3%), 대기업 22.7조원(12.3%)에 달하고 있어 조달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조달제도가 여러 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조달제도 및 행정에 관련된 운영 개선을 제기해 왔다.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과거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개선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낙찰율, 낙찰하한율, 예가산정 등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 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공공 조달의 적정 단가 조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원가 상승이 높아지고 있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적정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면 저가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

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기술혁신 제품의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혁신제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혁신조달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혁신조달 대상인 혁신제품은 다음 세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는데 첫째,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둘째,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 셋째, 기술인정 혁신제품을 의미하며 조달청의 조달정책 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는 혁신제품 구매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운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 이전에 혁신 시제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예산 규모는 465억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 혁신제품 구매목표는 5,477억에 달하고 있다.

혁신제품에 혁신조달 및 우수 조달의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혁신조달 규모 및 품목 확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지향 공공 조달 비중 확대는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기업의 생산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조달 확대가 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을 견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혁신조달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혁신 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혹은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조달을 통한 공공부문 문제해결이라는 공익성과 혁신 스타트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조달정책으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초기수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민간시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9년 도입 이후 혁신조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전체 조달 규모와 비교해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제품 및 기술의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혁신제품 조달 규모 및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혁신조달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